

# 박 “선동적 거짓말” 문 “경제무능 후보”

### 후보측 2차 TV토론 평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은 10일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자신의 후보를 지켜세우며 우위를 주장했다.

박 후보 측 안현환 대변인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민생 대통령 면모를 보여줬다”며 “논리적으로 답하고 현안을 정확히 파악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줘 누가 경제를 살릴지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 후보에 대해 “부자감세 100조원이라는 대통령 후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인 거짓말을 했고 답변지를 찾기도 바쁜 정도로 부실한 토론을 했다”고 혹평했다.

반면 문 후보 측 박광은 대변인은

### 경기침체 해소·경제민주화 대책엔 엇갈려

### 전문가들 “대선판도 영향 미치지 못할 것”

“문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 복지 등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줬다”며 “치커 세운 뒤 박 후보에 대해선 ‘박 후보는 경제 무능·복지무지 후보임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영근 부대변인도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모순된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전두환에게 받은 검은 돈 6억원과 경남기업 회장에

게서 받은 성북동 주택의 세금납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박 후보의 토론 태도를 문제삼았다.

전날 2차 TV토론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토론이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복지·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들이 향후 5년간 어떤 원칙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는 큰 그림을 보여 주지 못했다.

다만, 유력주자인 박 후보와 문 후보 중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에 대

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박 후보가 수혜를 봤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는 주제 자체가 야권에 유리하다는 전제 아래 문 후보가 우세했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경기침체 해소 대책은 박 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토론은 전문가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줬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 토론에서 앞섰지만, 소득 양극화와 경제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한편, 시정조사사업체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이번 2차 TV 대선 토론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34.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1차 토론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1일 신안군 하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려 하던 일부 주민들이 한광옥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 하도도 방문 황우여 대표·한광옥 부위원장

## DJ 생가서 “동서화합” 호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신안군 하도도에 방문해 동서화합을 호소했다. 황 대표 등 새누리당 당직자와 지지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여객선 편으로 하도도에 도착해 미니 버스에 나눠 타고 곧바로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황 대표 일행은 이날 하도도를 방문하고 나서 안좌도 김환기 화백 생가와 팔금도, 암태도, 자도도, 압해도 등 도서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민들은 “한씨가 DJ 비서실장까지 지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생가 방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가에 들어선 황 대표와 한 부위원장은 추모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분향하고 묵념했다.

이러 사진과 글을 돌려보이며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황 대표 일행은 이날 하도도를 방문하고 나서 안좌도 김환기 화백 생가와 팔금도, 암태도, 자도도, 압해도 등 도서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 분석

### 미수에 그친 박근혜 지지, 길었던 박주선의 사흘

## “차 정책 공감하나 결론은 文 지지” 민주당 본거지 대이변 벌어질 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11일 박 후보가 아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 지지설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만나 지지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해본 결과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통합과 호남발전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에서 박근혜 후보와 30분가량 독대할 자리에서 박 후보로부터 ‘국민통합과 호남의 발전을 위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후보의 정책과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박 후보 지지) 국회의원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개인적 입장에서 박 후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 후보 지지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다는 뜻이지만, 지역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지지 표명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지자들과 지역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박 의원의 마음을



무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후보 지지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돌린 결정적 계기는 동교동계의 만형격인 권노갑 고문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고문은 지난 9일 박 의원에게 권화를 걸어 간곡하게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도 지난 10일 대선 토론회가 끝난 뒤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의원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문 후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호남 소

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이에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일 불거졌던 박 후보 지지설은 사흘 만에 ‘불발’로 끝났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상당면 광주의 정치적 성향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비록 현재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현역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호감을 느끼는 등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고심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박 후보 지지 논란과 관련해 호남 표심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던 시점에서 ‘박 후보와 독대’, ‘문 후보와 통화’로 인해 ‘존재감’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박 후보 지지로 놓고 혼신을 빚었다는 점에서 리더십 훼손에 대한 우려와 대선 후 양 당으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대선 이후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근혜 잇단 말실수 논란

### ‘지하경제 활성화’ ‘줄푸세=경제민주화’ 황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당시 토론에서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영영 공동선대본부장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4·19혁명과 5·16쿠데타가 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 민주화항쟁이 같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시대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말했다.

이에 박 후보 측 안현환 대변인은 “단순 실수로, ‘지하경제 활성화’를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전후 문명상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영영 공동선대본부장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4·19혁명과 5·16쿠데타가 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 민주화항쟁이 같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시대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소액/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T.062-525-5000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김 중 원 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률 (근린시설 4층) 4652㎡, 222387㎡, 김장가 14억, 최저가 4억95천</li> <li>숙박시설 (치병동) 4704㎡, 22042㎡, 김장가 32억, 최저가 22억</li> <li>나주남평 (주유소) 44428㎡, 22553㎡, 김장가 10억9천, 최저가 6억9천</li> <li>전북김제 (물류센터) 8076㎡, 22504㎡, 김장가 25억, 최저가 8억</li> <li>화순야당 (공정) 6536㎡, 22056㎡, 김장가 9억9천, 최저가 2억9천</li> <li>충장로 (근린주택) 215㎡, 2306㎡, 김장가 4억6천, 최저가 2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구 대촌동 (2층공정) 1506㎡, &gt; 건물 1031㎡, &gt; 김장가 39억9천, &gt; 매매가 25억9천</li> <li>북구 대촌동 (2층공정) 3289㎡, &gt; 건물 1601㎡, &gt; 김장가 52억9천, &gt; 매매가 36억9천</li> <li>목포 상동 (숙박시설) 170㎡, 22544㎡, 김장가 18억9천, 최저가 11억9천</li> <li>무안 망운 (숙박시설) 257㎡, 2346㎡, 김장가 11억, 최저가 6억9천</li> <li>화순 도곡 (무인텔) 1904㎡, 22628㎡, 김장가 26억9천, 최저가 18억9천</li> <li>나주중앙동 (근린상가) 330㎡, 2480㎡, 김장가 123억1천, 최저가 16억9천</li> <li>목포 상동 (근린주택) 1697㎡, 2204㎡, 김장가 88억, 최저가 62억</li> </ul>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 open 예정인 (주)솔향기팜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도(여)2명, 설갯이(여)1명, 출서비6명, 매니저(남,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개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구주택(일부, 투룸, 트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매가 8억9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도로로 적합
- 비어있는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법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